

키트루다, 2023년 매출 250억 달러로 글로벌 1위 등극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- 미국 머크(Merck)사에서 발표한 2023년 매출 실적에 따르면, 면역항암제 키트루다(Keytruda) 매출이 25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9% 증가함.
 - 머크의 2023년 연간 총 매출은 601억 1,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% 증가하였으며, 특히 머크 전체 매출의 41.6%를 차지한 키트루다의 매출 상승이 다른 제품의 매출 하락분을 상쇄하는 역할을 함.
 - 2023년 키트루다 매출은 250억 1,100만 달러로 매출을 분기별로 살펴보면, 1분기에는 57억 9,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0% 증가하였으며, 2분기에는 62억 7,100만 달러로 19%, 3분기에는 63억 3,800만 달러로 17%, 4분기에는 66억 800만 달러로 21%가 증가하는 등 매분기 매출 상승이 이어짐.
 - 머크에서 2023년 연간 매출 1위인 키트루다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 가다실/가다실9(Gardasil/Gardasil9) 매출은 88억 8,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% 증가함.

- 키트루다는 출시 4년만인 2018년에 7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매출 순위 5위에 올랐으며,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며 2023년 기준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에 등극함.
 - 팬데믹 기간 동안 휴미라와의 격차를 좁혔으며 2022년에 휴미라의 매출이 212억 3,7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, 키트루다의 매출은 209억 3,700만 달러를 기록함.
 - 최근 Drug discovery & development가 발표한 '2023년 매출 상위 의약품'에 따르면, 1위는 키트루다(250억불), 2위 듀피젠트(232억불), 3위 엘리퀴스(190억불), 4위 코미나티(154억불), 5위 휴미라(144억불), 6위 오젠폍(139억불), 7위 아일리아(129억불), 8위 엘리퀴스(122억불), 9위 빅타비(119억불), 10위 스텔라라(109억불)이 10위권에 포함됨.
 - 특히, 2022년 기준 매출 3위였던 키트루다는 2023년에 1위에 올랐으며, 2022년 기준 매출 2위였던 휴미라는 특허 만료로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32.2%로 감소해 5위로 하락했으며, 2022년 1위였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는 71.5% 급감해 2023년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함.

- 머크는 삼중음성 유방암과 신세포암을 포함한 초기 치료제로 추가 승인된 것이 키트루다의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 - 글로벌 투자회사인 에드워드 존스(EdwardJones)는 키트루다의 매출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2024년 매출이 약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.

<참고자료>

1. Merck Announces Fourth-Quarter and Full-Year 2023 Financial Results, merck.com
2. Fourth Quarter & Full-Year 2023 Financial Results, msd.com
3. Who's No. 1? With \$25B in sales, Merck's Keytruda looks to be the top-selling drug of 2023, FiercePharma, 2024.2.1.
4. Best-selling pharmaceuticals of 2023 reveal a shift in pharma landscape, Drugdiscovery&development, 2024.3.13